

프로그래밍 언어 연구회지를 위하여

이 광근

KAIST 전산학과/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

1998년 6월 15일 (2003년 7월 24일 수정)

한국의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. 좀 급한 감이 있지만, 요즘은 막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회지의 모습이 새롭게 단장되고 있고, 조용히 앉아만 있는것은 무책임한 낙관같기도 하고 해서, 정리해 보았습니다.

글에서 “우리”는 앞으로 만들어질 훌륭한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회의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. 그 미래의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공감대를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

오래된 미래를 우리는 더 이상 목혀둘 수 없다.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내거나, 손에 잡힐듯한 미래로 당겨와야 할 것이다.

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길게 계획하고자 한다.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땐 시류에 편승하기도 해야 할 것이지만, 우리의 판단으로 새로운 물길을 트는 것도 주저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. 오직 각자 공부한 바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노력들로 이 지면들이 채워졌으면 한다.

한결같이 먼길을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, 날로 새로와지는 활동을 꾸미도록 하자.

우리는 경계한다. 각자의 능력을 계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제도와 외형에 대한 논의만을 생산하는 데 우리의 능력을 소모해서는 안될 것이다. 자칫하다간 우리보다 커져버린 제도가 내실 없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임을 깨닫게 되는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우리는 제도로부터 소외당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재주와 열정이 조루로 끝나게 할 수는 없다. 이 곳은 우리가 몸담은 현실로부터 서로의 창의와 즉대와 상상력을 견져줄 수 있는 내실을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. 제도를 넘어서는 동료들의 재주를 견실하게 가꾸어줄 수 있는 내실있는 우리들을 만들어가자.

비판적 긴장을 지켜나가는 합리는 우리들의 알파요 오메가다. 그 합리성의 방략은 당연히 격의 없고 구체적인 대화와 교류이다. 만나고 대화하고 차이와 긴장을 참어나가는 방식이 낯설고 두려운 이 시대 교육의 맹아들인 우리들을 쇄신하자. 조그만 제도와 조그만 권위를 세우기에 바빠서 자신의 내실을 규모있게 가꾸어보지 못할 우리들을 거부하자.

마지막으로, 우리분야의 기지촌의 관성을 뿌리쳐야 한다는 자각과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공할 프로그램을 면밀히 고안하자.

□